

다산포럼



이도홍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모든 이들이 소망을 빌지만 여는 해보다 마음이 어둡다. 윤석열 정권을 맞아 모든 분야에서 역주행이 한창이고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들은 생존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팔레스타인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다. 수많은 난민들과 빈민이 세계 곳곳에서 굶어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열어 죽고 있다.

눈앞의 현상만이 아니라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외신은 올해 76개 국가에서 선거가 치러지지만 평화와 평등을 추구하는 정치인보다 그렇지 않은 이들이 더 득세하고 자연재난도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것이 올해만의 풍경이 아닐 듯하여 더욱 걱정이 크다. 지구촌 사회가 인류세(Anthropocene), 혹은 자본세(Capitalocene)를 맞아 자본주의 축적의 위기와 불평등의 극대화,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과 AI로 인한 노동과 정체성의 위기, 패권의 변화와 전쟁의 위기, 공론장의 붕괴와 민주주의 위기, 간헐적 펜데믹의

갑진년을 복합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자

위기 등 6대 복합위기(poly-crisis)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1860년대에 46%에 이르던 평균이윤율은 10% 이하로 떨어졌고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에 접어들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자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불평등이 심화하였고, 이는 경제만이 아니라 노동, 보건과 건강, 교육, 젠더의 격차를 점점 더 벌리고 있다. 대략 38%에 이르는 생명이 멸종위기에 이르렀고, 역대급의 폭염, 흑한, 가뭄, 폭우, 폭설, 산불, 미세먼지가 일상이 되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이 생명을 조작하고 창조하는 초자연적 존재의 지위에 올랐고, 로봇과 AI는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서 노동운동들을 무력화하고 인류문명을 뒤흔들고 있다. 국제로봇연맹(IFR)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에 1만개 일자리 당 로봇 밀도가 1000곳이다. 여러 해째 압도적인 세계 1위다.

자본주의 축적 위기의 토대에서 패권이 변화하면서 결국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도 전쟁의 파고가 높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서 7억여 명을 감염시키고 696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람에도 자본과 언론의 유착, 확증편향, 반향실효과, 가짜뉴스로 공론장이 거의 붕괴된 바람에 민주주의는 오히려 작동하지 않는다. 대안을 모색하는 커널 복합위기를 심화하는 이들이 권력을 잡는 것이 더 늘고 있다. 위기로 인한 파멸이 먼 미래가 아니기에 더욱 절박하

다. 기후위기 한 가지만 하더라도 현재 지구 대기의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424ppm에 달하는데 파국인 450ppm에 달하는 시점이 5년밖에 남지 않았다. 원인을 찾아 지금 당장 처방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의 미래는 깜깜하다. 복합위기의 원인은 산업화, 도시화, 인구, 인간 중심주의,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과학기술의 도구화, 물질주의,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등인데 근본은 자본주의 체제와 세계체제다.

더 늦기 전에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을 단행해야 한다. 허버마스의 말대로, “유토피아의 오아시스가 말라 버리면 진부함과 무력함의 사막이 펼쳐진다.” 이제 자본주의를 넘어 새로운 사회와 세계 체제를 향한 상상과 실천이 필요하다. 로봇과 AI, 바다와 숲, 토지, 에너지 등의 사회적 공유와 시민사회의 통제 없이는 어떤 대안도 미봉책에 그친다. 자본주의 체제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 바이오 연료 보조금, 환경세 등 어떤 혁신적인 대안들도 이윤 추구 원리에 종속시켜 한낱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결국 무력화하는 것을 보지 않았던가.

다가오는 시대는 GDP나 무역량보다 생명의 다양성과 국민의 행복지수를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한다. 개인 또한 타자와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에서 더 행복감을 느끼는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으로 전환하자. 그렇게 갑진년을 복합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만들자.

社說

국민의힘, '5·18 왜곡' 엄단으로 의지 보여야

국민의힘 소속인 허식 인천시의회의장이 5·18을 왜곡 폄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시민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사건은 한 광역의회 의장의 돌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잇달았다면 5·18을 왜곡 폄훼해 왔다는 점에서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허식 인천시의회의장은 지난 2일 인천시의회 40명에게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신문에는 '5·18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북한이 주도한 반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식이 알려지자 유족회를 비롯한 5월 단체와 5·18기념재단 등 광주지역 단체들은 국민의힘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파문이 일자 허 의장은 어제 급하게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의장직 사퇴를 요구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5·18 왜곡 폄훼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9년에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의원이 5·18을 폭동으로 규정해 논란을 키웠고 지난해에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당원권 정치 1년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당 소속 정치인들의 5·18 폄훼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 입으로는 헌법 수록을 말하면서 왜곡된 사고는 바로잡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5·18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아니라는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엄단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저출산 오죽했으면

광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매년 광주시에 소재한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집해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제 초·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들을 둔 직장 맘 또는 직장 대디들은 자녀보다 우선인 직장으로 달려가야 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엄마(아빠)들은 3~4월 두 달간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한 시간 늦추고 여유롭게 자녀 등굣길을 돌볼 수 있게 된다. 임금 또한 삭감 없이 기존 임금을 그대로 받는다. 그 대신 중소 사업장은 광주시로부터 한 시간의 손실분에 대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직장 맘(대디)과 중소기업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 제도라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장려금 지원 건수를 지난해 125건에서 올해 150건으로 늘렸다. 지원

금 규모도 2022년 월 33만 원이던 것을 지난해에 69만 원, 올해 74만 8000원으로 증액했다.

수년 전부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평균(1.58명)보다 현저히 낮다. 그마저 2022년에는 0.78명으로 급감했다. 광주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도는 0.84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 마다 저출산 해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추진하는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질분에 대해 지원금을 받게끔 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지자체와 기업 모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환경 조성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은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 나갈 동량(棟梁)이다.

無等鼓

'분식의 총아', '식량난 해결의 역군'. 1960년대 중반 중앙일간지에 실린 라면 관련 기사의 제목이다.

1963년 국내에 첫 출시된 라면은 초창기에는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분식을 적극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시장이 급성장했다. 예상장에서 국수 대신 라면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당시 월간 900만식(食)의 라면 생산량은 연간 30만 식의 식량을 대체했다. 한국산 라면은 1968년 10월부터 수출되기 시작했다. 첫 수출지는 베트남으로, 16만 달러 규모였다.

라면은 소중한 밥 한 끼를 대신했고 때로는 인스턴트 비상식이기도 했다. 특히 한겨울 산행 중 보온병에 담아온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컵라면이 그러했다. 1958년 일본인(안도 모모후쿠)이 발명한 인스턴트 라면은 한국 땅에서 그 나름의 생활문화를 형성했다. 라면을 처음 먹어본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어릴 적 맛본 라면은 별미 이상의 것이었다. 그동안 먹은 라면의 개수는 가능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2022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은 77개로, 베트남(85개)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야말로 한국인의 '제2의 주식', '소울 푸드'라고 할만 하다.

윤덕노 음식문화 평론가는 '음식으로 읽은 한국 생활사'에서 "(라면의 역사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의 탐과 눈물이 모두 스며 있다"며 "라면에는 극한의 가난을 견디어 낸 중국 부두 노동자들의 질곡과 패전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일본인의 노력, 산업화 과정에서 잘살아보겠다고 허

리를 졸라맨 한국인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말한다.

한국 라면 수출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전년 보다 24% 증가한 9억5200만 달러(1조200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1960년대 '식량난 해결의 역군'이었던 라면이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K푸드'로 자리 잡았다.

K콘텐츠의 영향과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한다. 배고파서 먹었던 라면이 이제 전 세계인의 식(食)문화가 됐다.

/송기동 예방부장 song@

K라면 수출 1조원

2040칼럼

'광주의 봄'을 꿈꾸며



정달성 위민연구원 상임이사 광주북구의회 의원

의 차이에서 나오는 듯 하다. 물론 사익에 둘러싸인 절박함 또한 큰 힘을 발휘할 텐데 공익에 기초한 절박함은 무진 막강한 무한대의 힘을 만들어 낼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지난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현재 우리는 절박함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 절박함이 얼마나 공고하게 묶여지고 있을까에 따라 결과물이 올 수도있고 아니면 물거품처럼 막연하게 떠다닐 수도 있다고 본다. 과연 서울의 봄은 올수 있을까? 특히나 광주의 봄은 올수 있을까? 절박함에 기초한 단단한 세력이 중심에 서고 적지않은 다수가 함께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광주촛불을 보며 그 힘을 확인하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매주 주말 저녁 촛불을 밝히며 이어가고 있는 광주촛불이 지난 6일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의 힘으로 좀더 크게 타올랐다. 어느덧 60회차를 거듭해 가고 있는 광주촛불. 똑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다. 하나 야무막이 말라도 방법을 몰라서 우물만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그 우물 파는 방법이 너무 고루해서 지나치는 사람도 많다. 또는 이미 해봤던 방법이라 어렵고 지난한 길 이라는 것을 알기에 쉬 달라붙지 않음도 이 해는 간다. 하지만 결국 함께 파야 빨리 팔수 있고 또한 시원한 물을 마실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믿음같은 진리의 길을 바로처럼 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가고 있다.

거리에서는 시민단체, 노동단체들이 때로는 소수로 때로는 다수로 끊임없이 촛불을 지기고 있다. 종교계에서는 시국미사, 시국예배, 시국법회 등을 통해 어수선한 대한민국에 의미있는 촛불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과 SNS 등으로 앞다뒀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서울의 봄을 만들어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필자는 작지만 소중한 광주 북구의 봄을 경험한 바 있다. 지난 8월초 무더위 속에서 작은 촛불하나 밝히는 마음으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삭발 및 단식 농성을 떠올려 본다. 변방의 북구정 앞 소녀상 광장에 열흘간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열흘동안 1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함께 실천하면서 한데 힘을 모았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90여 개의 사회단체, 마을단체가 기자회견 및 릴레이 피켓팅 등에 참여하고, 정당들도 동참했다. 그리고 북구 소녀상 광장에 시국미사가 열리고 목사님들의 농성장 대책회의 및 실천이 이어졌다. 각계각층이 모이니 말 그대로 촛불광장 그 자체였다. 이미 북구의 봄은 우리앞에 펼쳐졌다.

다시, 광주의 봄을 만들어 보자. 기술어진 운동장에서 언론과 검찰 등을 타겟하지 않거나 수평한 광장에서 시민과 각 사회단체와 종단 그리고 정치권이한한 대동반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시민들의 대동세상을 만들 포부를 꿈꾸며 절박함을 가지고.

기고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2024년



정우철 광주재능기부센터장

처에 대해 알려준 곳이 없었다고 하면서 감동 받은 값으로 쌀 100포를 더 기부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시작된 기부가 매 년 명절 때마다 두 차례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쌀 100포씩을 전달해 지난 10년간 2450포의 기부가 이루어졌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라도 하면 오히려 자신이 더 감사한 일이 많이 생겼으며 승진이 잘돼 상무였던 시절 인연이 현재 그를 부사장까지 올랐고 늦둥이까지 생겼다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연락을 해온다.

이처럼 광주재능기부센터를 통해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는 분들이 많다. 최근 소방관을 퇴임한 최복동 전 소방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복동 전 소방관은 소방관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힘이 닿는 대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돕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다 지난 2006년부터 휴식시간에 빈병이나 폐지를 모아 판매를 시작했고, 판매한 금액을 힘든 분들을 위해 기부해왔다. 빈병과 폐지를 모아 판매를 한 지 15년째 되던 2017년도에 기부금이 1억원을 넘어설 정도였다.

이후 광주재능기부센터와 인연이 되어 상당한 금액의 현금 기부와 쌀, 해산물 등의 물품 기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최근 퇴직을 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화인데코 이상철 대표도 정말 감사한 인연이다.

2013년 변변한 사무실이 없던 시절 용봉동 자신의 건물 2층을 무상으로 기부하면서부터 인연이 되었는데 공간뿐만 아니라 사무용 가구 및 비품 등을 구입하라고 지원을 해준 데 이어 현재까지 매 년 빠짐없이 금전 기부와 명절에 복지사각지대 긴급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게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재능기부센터를 통해 나눔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다.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일절 받지 않고 오직 회원들의 후원금만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다 보니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부의 손길을 내밀어 준 시민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광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될 수 있었다.

광주재능기부센터는 2024년 첫 프로젝트로 '똑! 똑! 헬스 스토어' 라는 가게를 운영할 생각이다. 문만 두드러지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식품류와 일상생활용품, 위생용품, 주방용품 등을 골라갈 수 있는 가게를 준비 중이다.

믿고 신뢰를 할 수 있어 기부한 기부금이 소중한 가치로 쓰일 수 있고 꼭 필요한 대상자를 실사를 통해 선정하여 마음으로 함께 해 준 기부자들에게 행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광주재능기부센터와 함께 하는 청룡의 해 갑진년이 되었으면 한다.

"나눔수록 행복해지는 세상! 그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정 치 부 220-065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8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